



"외손자를 보아 주느니 파발을 매지"

뜻: 애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줘도,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나 보람이 없어 허무할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헛수고 · 보람 · 공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외	손	자	를	↓	보	아	↓	주	느	니
파	발	을	↓	매	지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외	손	자	를	↓	보	아	↓	주	느	니
파	발	을	↓	매	지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	↓		
				↓				↓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ㅅㅈㄹ] [ㅂㅇ] [ㅈㄴㄴ] [ㅍㅂㅇ] [ㅁㅈ]

웹에서 보기

